

2024 02 소그룹교재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어둠이 걷히는 날



새84장(통96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
새484장(통532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님과 같이

여는 질문

당신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본문 이해

하나님의 빛은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추십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힘겨운 백성들을 향해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고, 기대할 수 없던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듯,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1절)라는 역설적인 소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고통받는 삶에는 계속 흑암이 ‘있기’ 마련입니다.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고통의 일상, 고통의 대물림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절망적인 어둠은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좇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곳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지역은 북 이스라엘입니다. 여긴 전성기 때의 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앗수르에 패망하여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을 떠나 아람과 동맹을 맺고 애굽의 힘을 빌어 스스로 강성해지려고 했던 북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8:19~22) 하지만, 그 땅에 살아가던 백성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지도층의 무능과 죄악 그리고 앗수르의 침략과 포악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고, 남은 자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망입니다. ‘흑암’입니다. 흉포한 앗수르의 점령지로 전락한 땅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예언자는 그 땅을 향해 선포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2절) 빼앗긴 들과 황폐한 땅에 불과했던 스블론, 납달리, 갈릴리를 향해서 말입니다. 저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이 지역들이 영화롭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더군다나 그 일은 강성한 영웅적 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한 아기에 의해서 시작된

다고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6절) 강력한 영웅의 전쟁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라 불리게 될 아기에 의해서 말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인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아기가 누구이며, 이 아기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선포하며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강력한 군대가 아니라 초라한 12명의 제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무릎 꿇린 권세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희생으로 구원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역설의 소망은 지금 우리의 흑암을 비추십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이뤄지는 소망이 아니라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시작되는 소망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 이사야 9:6-7에서 기록하는 평강의 왕의 모습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삶 속으로

- 당신에게 있어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무엇입니까?
- 깊은 어둠에 있을 때 경험한 은혜가 있으십니까?

암송 구절 | 이사야 9: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녀와 나눔

자녀가 겪고 있는 힘든 일에 대해 들어보고,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부모는 어떻게 기도했었는지)에 대해 들려줍니다.

2

둘째 주 소그룹 모임 | 본문 이사야 10:1-4

우리의 기준



새510장(통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새359장(통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여는 질문

다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육신의 건강, 마음의 평안, 사랑하는 가족, 물질의 풍요, 자유로운 시간)

본문 이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나쁜 화폐가 좋은 화폐를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금화나 은화가 통용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금화의 중량을 약간 줄이던가, 아니면 겉을 교묘하게 깎아서 불법적으로 유통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금화를 조금씩 깎아서 105개 정도를 만들어 유통하는 겁니다. 5개의 금화를 거저 얻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면 원래 금화를 갖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양화 즉 정확한 중량의 화폐는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집에 보관만 할 테니까요. 그럼 점차 악화 즉 무언가 하자가 있는 화폐만 유통되게 됩니다.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즉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은 단지 화폐에만 통용되는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화폐는 세상의 여러 기준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기준이 되는 것이 흔들리면 어느 분야든 혼란이 찾아오고, 비정상이 정상을 뒤흔드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릇된 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면, 점차 올바른 것은 침묵하게 되고 결국 자리를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지켜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1-2절) 법이라는 기준을 흔들어서 불공평을 공평이 되게 하는 모든 일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최종적인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 옳다 하신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르다 하시는 것은 그른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며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점점 조롱당하고 부정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달라서 일까요? 아닙니다.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소중한 삶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나의 편의가 아니라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알맹이까지 그리스도인인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속으로

-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일들이(1-2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 속으로

-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한 일은 무엇입니까?
- 내가 지켜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암송 구절 | 이사야 10:2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녀와 나눔

힘이 센 친구가 모든 것을 자기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니? 그것이 왜 나쁜 것인지 말해 볼까?

3

셋째 주 소그룹 모임 | 본문 이사야 26:20-21

하나님께서서 나오신다



새70장(통79장) 피난처 있으니
새384장(통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여는 질문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본문 이해

믿는 자들에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아픔 중에 탄식하듯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것은 아픈 질문입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아프면 이런 탄식을 하겠습니까? 이런 지독한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네 밀실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갈지어다 네 밀실로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20절) 그런데, 이 말씀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당장 눈앞에 환난이 있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밀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있으라니, 어떤 속 편한 사람이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당면한 문제를 외면하고 밀실로 들어가는 것은 현실도피 아닌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현실도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당장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을 기다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심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21절) 우리가 밀실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나오십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이상반된 모습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잠잠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 중에 내가 어떻게든 맞서고 해결해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문제앞으로 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날, 내가 나가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쓴다고 극복이 됩니까? 더 위험해질 뿐입니다. 그럴 때는 비바람이 그치길,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몰아내고 해를 보게 하시길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 속에서 북 왕국 이스라엘은 앗수르에 패망했습니다. 남 유다도 바벨론에 패망할 것입니다. 강대국이 침략

하고 수탈을 당할 때 그 남은 백성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들 중에는 자신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대국 애굽의 힘을 빌리고, 이웃 나라들과 연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선포합니다. 밀실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결국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라.

말씀 속으로

-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밀실로 들어가 숨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삶 속으로

- 요즘,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 하나님께 말기고 있습니까?

암송 구절 | 이사야 26:21a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자녀와 나눔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도우심을 주셨으면 좋겠어?

4

넷째 주 소그룹 모임 | 본문 이사야 31:1-5

우리의 기준



새354장(통39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새370장(통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만 바라볼지라

여는 질문

위기의 순간 성급한 판단으로 일을 더 어렵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본문 이해

커다란 위기가 닥쳐오면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이 위축되어 그릇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앗수르의 침공 앞에 놓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자 했고,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그들의 병거와 마병 즉,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와 같은 태도를 일종의 우상숭배로 여깁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라고 고발합니다. (1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도움을 구하려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하는 자들이지요. 그런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방향이 한참 어긋나 있습니다. 방향이 어긋나 있으니 바라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판단이 이해는 됩니다. 앗수르라는 제국이 침공하는 커다란 위기 상황 속에서, 당장 하나님의 도우심은 보이지 않고, 애굽의 국력은 보입니다. 소문이 자자한 그 강력한 군사력을 힘입어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판단,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올바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올바른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앙모’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 놓더군요. “창조적인 긴장과 거룩한 불확실성을 안은 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걸 조금 풀어보자면, ‘눈앞에 그럴듯한 다른 방법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 이뤄질지, 이뤄지긴 하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더라도,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앙모입니다.

2015년 개봉한 암살이라는 영화의 마지막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같은 독립군이었던가 일제의 앞잡이로 돌아선 배신자를 주인공이 처단하는 장면인데요. 그때 그 배신자를 향해 주인공이 묻습니다.

“왜 그랬나?” 배신자가 대답합니다. “독립할 줄 몰랐으니까” 독립하지 못하고 끝까지 식민지로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일본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 독립은 잘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독립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독립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모는 이와 비슷합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의심이 생겨도,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리라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양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5절) 새가 날개를 치며 보호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불현듯 도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십니다.

말씀 속으로

- 하나님을 양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삶 속으로

- 당신에게 있어 가장 큰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엇입니까?
-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양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암송 구절 | 이사야 31:5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자녀와 나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니?

1

The First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Isaiah 9:1-7**

The Day the Darkness Lifts



The Lord of Glory, the Light of Earth
Be Thou My Vision
There Is None Like You



Opening Discussion

What are your deepest desires?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God's light illuminates the darkest places. He preaches the message of salvation to the people who are so desperate and are struggling and shows them hope that they do not expect. As the prophet Isaiah proclaims, there is a paradoxical hope that "there will be no darkness for those who suffered before" (v. 1). According to the logic of the world, there will always be darkness in a life of suffering. You can't overcome it on your own.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the daily life of suffering and the passing down of suffering continues. That is why the most hopeless darkness must have the light of God. And our good God doesn't turn away from it.

In the text, it is in northern Israel that Isaiah prophesies. This is not northern Israel in its heyday. Israel was destroyed by Assyria and everything was devastated. The prophet rebuked the leaders of northern Israel for turning away from God, allying with Aram, and seeking to strengthen themselves with the power of Egypt. They deserved to be judged for their sins (8:19-22). But what about the people who lived in the land? They had to suffer the incompetence and iniquity of their leadership, as well as the Assyrian invasion and tyranny. Many were killed or taken captive, and the remnant were terrified. It's despair in the midst of nothing. It's "darkness." What hope is there for a land that has been reduced to a ferocious Assyrian occupation?

Amazingly, the prophet proclaimed to Zebulun, Naphtali, and Galilee, which were nothing but usurped fields and desolate land. "The people who walked in darkness saw a great light, and the light shone on those who dwelt in the land of the shadow of death" (v. 2). He says that these very areas will be glorified, not Jerusalem or Samaria. It's a surprising paradox. What's

more, it was not done by a mighty heroic king. It is said to be started by a baby. “For a child is born of us, and a son is given unto us, and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and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v. 6). Not by the war of mighty heroes, but by the babe who will be called the Prince of Peace. What a paradoxical hope.

We know who this baby is and God’s work of salvation through this baby. It is our Lord Jesus Christ, who proclaimed the gospel from Galilee and gave us the light of salvation. It is Jesus Christ, not a mighty army, who proclaims the Kingdom of God through 12 humble disciples. It was Jesus Christ who opened salvation not by the power that brought the world to its knees, but by His sacrifice on the cross. The hope of this paradox illuminates our darkness now. It’s not a hope that comes true because it seems like it will happen, but a hope that begins even though it seems impossible. We have been given the amazing grace of the Lord to save sinners like us.

Into the Word

- How is the image of the Prince of Peace recorded in Isaiah 9:6–7 connected with the image of our Lord, Jesus Christ?

Into our life

- What is Jesus’ salvation for you?
- Have you experienced grace when you were in deep darkness?

Memory Verse | Isaiah 9:2

The people who walked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those who dwelt in a land of deep darkness, on them has light shone.

Sharing with your children

Listen to your child talk about a struggle they are going through and how they prayed or can pray during that time.

2

The Second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Isaiah 10:10-4**

The Standard



Brightly Beams Our Father's Mercy
Go Forward
Please Come, Holy Spirit of Truth

Opening Discussion

Choose the most important thing to you among the following and explain why: physical health, peace of mind, loving family, material wealth, or free time.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Devaluation causes the corruption of the currency." This implies that bad currency drives out good currency. There was a time when gold and silver coins were in circulation. During that time, there were people who either slightly reduced the weight of gold coins or cleverly shaved them to distribute them illegally. For example, they would shave a little off 100 gold coins to create around 105. They would gain five extra coins in the process. The problem is that when such activities happen openly, people who initially used proper gold coins will suffer losses. So, precise currency with the correct weight disappears from the market. People will start hoarding it without using it. As a result, lousy currency, in other words, money with some defect, takes over the circulation. This is what the phrase "devaluation caused the corruption of the currency" means. However, "devaluation causes the corruption of the currency" is not just about currency; it also applies to other aspects. Money is just one of the standards of the world. In other words, if the standard is challenged, confusion can occur in any field, and the abnormal can displace the normal. When something false becomes a new standard, the truth becomes ignored and can eventually be replaced. Therefore, safeguarding accurate standards is crucial. In today's text, the prophet Isaiah proclaims, "Beware, those who enact unjust policies; those who are always instituting unfair regulations, to keep the poor from getting fair treatment, and to deprive the oppressed among my people of justice, so they can steal what widows own, and loot what belongs to orphans" (vv. 1-2). He denounces all actions that create injustice by corrupting the

standard of justice. The prophet declares that God will certainly judge such actions. The God we believe in is a God of order. All ultimate standards rest with God. What God deems right is right, and what He deems wrong is wrong. It is not insisting on my way because it is convenient for me or because I think I have the power to disregard God's will.

Christians follow God's standards and demonstrate a different way of living in the world. However, it seems that a life lived in faith is increasingly ridiculed and opposed. Is it because we are different from the world because of our faith? No, it's because we are the same as the world. It's because we do not live out the life of holding onto God's Word and don't love our neighbors. How should we live then? We should follow God's Word regardless of what the world says. We have to be the people who obey God's Word rather than seeking our convenience. We can't just appear to be Christians outwardly but must be Christians in substance. Let it be so!

Into the Word

- Are the events that Isaiah the prophet denounced in Isaiah 10:1–2 happening in our lives?

Into our life

- Where have you chosen in your life to follow God's standard?
- What "Christian way of life" should I follow?

Memory Verse | Isaiah 10:2

To turn aside the needy from justice and to rob the poor of my people of their right, that widows may be their spoil, and that they may make the fatherless their prey!

Sharing with your children

How do you feel when a bully tries to do everything their own way? Tell us why that's not a good thing.

3

The Third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Isaiah 26:20–21**

God Is Coming



God is Our Refuge Strong
A Mighty Fortress Is Our God
Jesus, My Shelter

Opening Discussion

Have you questioned if God is alive?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Believers often grapple with an inescapable question during their lives. “Is God alive?” It usually arises when people go through trials and pains of life. “Is God alive?” This is a painful question. How difficult and painful must things be for us to utter such a remorseful expression? What can we do when we are faced with such intense pain? Scripture tells us to enter a room. “Go, my people! Enter your inner rooms! Close your doors behind you! Hide for a little while, until his angry judgment is over” (v. 20). However, this is much more difficult than you think. How can anyone enter a room and close the door to hide when we have to deal with tribulation and challenges? Wouldn't this be avoiding reality? Scripture isn't suggesting that we escape from reality. It tells us to wait and watch for God's intervention before taking action. Verse 21 says, “For look, the Lord is coming out of the place where he lives, to punish the sin of those who live on the earth. The earth will display the blood shed on it; it will no longer cover up its slain.” When we enter our room, God will come. The antithesis of this message causes us to rethink. When we are quiet, God will be active.

In times of trouble and hardship, we often think we must confront and resolve our problems independently. We take matters into our own hands. But it is resolved when we ask God to step in. Do you think it is right to conquer a massive storm by going out and battling it with our power? It will only get riskier. Wisdom lies in waiting for the storm to pass for God to clear the clouds and have the sun come out.

In scripture,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fell to Assyria, and southern Judah was on the

brink of defeat to Babylon. How challenging must it have been for the remaining people as mighty nations invaded and plundered them? Some attempted to face this difficulty with their strength. They sought the help of the mighty nation Egypt and sought allianc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However, the prophet said to “enter the room.” He advised them to wait and look for what God would do.

Into the Word

- Why did God instruct His people to enter their rooms and hide?

Into our life

- What is the most challenging problem you are facing now?
- Are you entrusting it to God?

Memory Verse | Isaiah 26:21a

For behold, the Lord is coming out from his place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kind of help would you like God to give you?

4

The Fourth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Isaiah 31:1-5**

Our Criteria



They That Wait Upon the Lord
The Trusting Heart to Jesus Clings
Yearning for God's Love

Opening Discussion

Have you ever experienced moments when you made things worse because you were in a rush to make decisions in the midst of a crisis?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When we face a crisis, we may make wrong decisions since we see and think of things in narrower perspectives. This was the case for the leaders of Israel when they faced the attack by Assyria. Instead of relying on God Almighty, they relied on Egypt. Instead of trusting in the power of God, they trusted in the military power, the horses, and the chariots of Egypt. The prophet Isaiah regarded this kind of attitude as a way of idol worship.

Therefore, Isaiah accused the leaders of Israel, "Woe to those who go down to Egypt for help" (v. 1). The people of Israel are the people of God. If they need any help, they should "go up" to God, not "go down" to anywhere else. However, they went "down" to Egypt for help. The spiritual direction was totally wrong. Since their compass did not work right, they could not see things correctly and they made mistakes.

Of course, we can understand the decision made by Israel's leaders. In the face of the scary attack from Assyria, they could not see help from God as the solution, but saw the strong military power of Egypt as the best option. Everybody knew how strong and invincible the military power of Egypt was at that time and the Israelite leaders followed the convincing choice. However, it was not the right decision.

What is the right choice in a crisis? It is to seek God earnestly. A theologian said that "Wait upon (look upon) God" means someone makes a decision to rely on God in the midst of the creative tension and holy uncertainty. In other words, even though there are lots of plausible options which look wise and convincing and we do not know how and when the will of God would be done, we decide to totally trust in God even though we might go back and forth on our decision.

There is a Korean movie called “Assassination,” which came out in 2015. In the last scene, the main character killed the one who betrayed the group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to become an ally to the Japanese military. The main character asked the betrayer, “Why did you do it?” The betrayer responded, “I did not know that Korea would ever become independent from Japanese colonial rule.” According to the betrayer, he never thought that Korea would possibly escape from the domain of Japan’s governance, so he took the side of Japan. That is true. For the people who lived through the colonial time, they could not see the possibility of being independent. However, those who never gave up their hope and conviction for Korean independence, finally faced the long-desired dream and vision of independence.

“Waiting on (looking upon) God” is similar. Even though we can’t see with our bare eyes right now, in the midst of our doubts and reasons, we are encouraged to not give up on the hope and promise that God will continue to work in our lives. So we are called to look upon God. That is “waiting upon” God. Isaiah proclaimed in verse 5, “Like birds hovering overhead, the Lord Almighty will shield Jerusalem.” When a bird hovers to protect her baby birds, there will be help from heaven suddenly coming down. Right now, we might not feel that there is help on the way. However, God always works in our lives in His time, in His ways, and with definite certainty.

Into the Word

- What does it mean to “wait upon (look upon) God?”

Into our life

- What is the biggest help from God for you right now?
- What is the reason for trusting God and looking upon God all the time and always?

Memory Verse | Isaiah 31:5

Like birds hovering, so the Lord of hosts will protect Jerusalem; he will protect and deliver it; he will spare and rescue it.

Sharing with your children

Have you ever experienced God hearing your prayers and God helping you?